

아직도 정신 못차린 전남도 출자출연기관들

새부서 만들어 되레 인원 늘리고 실과 이름만 바꿔 '어물쩍'

월세 年 500억 까먹고도 '부실' 경영혁신안 제출

R&D개발 고가 장비 활용률 20~30%대 ... 예산낭비 전형

연간 500억원이 넘는 월세가 투입되고 있는 전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부실' 경영혁신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규부서를 만들어 오히려 인력을 대폭 증원하겠다는 기관이 있는가하면 실과 이름만 바꾸거나 부풀려진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기관도 있었다.

특히 R&D(연구개발) 기능을 가지고 고가의 장비를 사들인 기관들은 장비 활용율이 20~30%대에 머물러 있어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26일 오전 도청 서재평실에서 전남

테크노파크 등 1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혁신 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안에 따르면 전남테크노파크는 미래산업추진실을 지역산업육성실로 바꾸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녹색에너지연구원으로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인원 감축 방안은 없었다. 20억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를 보유한 전남테크노파크의 장비활용율은 지난 2013년 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이나 유관기관의 공동 활용을 통해 2018년

까지 70%로 향상시켰다고 밝혔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하락하고, 기술개발이 신속해지면서 현재 장비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의 경우 기존 25명의 인원에서 8명을 증원해 33명, 환경산업진흥원은 15명에서 16명을 늘려 31명으로 각각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장비 활용율은 지난 2014년 23%에 불과했으며, 2018년까지 65%로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환경산업진흥원은 86종 304대의 장비를 올 상반기 내 구축해 운용인력까지 채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두 7개의 연구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생물산업진흥원은 경영혁신안으로 연구원을 연구센터로 개칭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2016년

국가기관으로 이관이 예정된 한방산업진흥원의 인력(19명)을 정원 감축 인원에 포함시키고 부풀려진 정원을 기준으로 삼아 26명의 인원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정작 정원 규모는 5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연구개발 기관들이 수요나 지역대학과의 충분한 검토 없이 고가의 장비를 덜컥 구입하고 그에 따라 정규직을 양산해놓은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서로 중복되는 장비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비와 인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영혁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도는 경영혁신 이행 여부에 따라 기관장의 연임·해임 여부를 검토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적쇄신과 조직 통폐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자치구 인사교류 갈등 풀리나

5개 구청장협, 부구청장 자치구 전입 4~5급 진출 요구 등 시와 협의키로

광주시가 광산구와 인사교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 5개 구청장 협의회가 시와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 해결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 5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구청장 협의회는 26일 광주시내의 한 호텔에서 협의회를 갖고 부구청장 자치구 전입과 관련해 4급이나 5급 진출을 요구하기로 하고, 시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일선 자치구 부구청장은 시 간부(3급)가 전보됐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부구청장 전입 조건으로 4급(서기관)의 시 진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산구의 하위직(7급·8급) 공무원의 시(市) 전입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인사피해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구청장 협의회가 4급과 5급을 함께 언급하고 융통성을 갖고 협의하기로 한 만큼 광주시와의 협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된다.

시는 최근 광산구와 갈등의 원인이 된 부구청장의 자치구 전입과 관련해 정기인사(6개월) 때마다 자치구별 형평성을 감안해 돌아가며 5급(사무관) 1명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2011년 자치구와 체결한 인사교류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재협약도 추진중에 있다.

시는 다만 협약에 참여하는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최근 5개 구청 관계자와 인사교류 실무협의회를 하는 등 협약 개정 등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늦어도 3월말까지는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협약 개정에 각 지자체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면서 "자치구의 입장 변화가 있는 만큼 인사교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광양제철소~여수산단 해저터널

전남개발공사 참여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 국가산업단지 사이에 해저터널을 구축해 양측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부산물)를 상호 교환하는 사업에 전남개발공사가 참여한다.

26일 전남개발공사가 발표한 경영혁신방안에 따르면 오는 4월 광양~여수 간 3.98km에 직경 3.8m의 해저터널을 구축하는 사업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포스코, GS칼텍스 등 5개 기관이 사업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적자사업장으로 분류된 해남방굴호텔과 천일염사업(유통) 등에 대해 이사회와 도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이후 매각 및 정리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광주 남구지역의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이 26일 오전 봉선동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600여명의 공공분야 일자리 참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세계수영대회 선수촌 건립 시작부터 '삐걱'

광주시 예정지 3곳 확정

시의회 "첨단 3지구 안돼"

광주시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예정지 3곳을 확정했지만, 광주시의회가 1순위 대상지인 북구 첨단 3지구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선수촌 건립사업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광주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북구 첨단 3지구(신규 택지개발지·4835세대)를 1순위, ▲광산구 승정 주공 구역(재건축·1251세대)는 2순위, ▲동구 계림8구역(재개발·1824세대)을 3순위로

3곳을 예정지로 선정했다.

전체 4500세대 선수촌 규모 중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3000세대 가량을 확보한 뒤 나머지 1500세대는 첨단3지구에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뒤늦게 신개발지역으로 물색한 첨단 3 지구는 광주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돼 광주시의회에서 개발사업 동의안이 통과되어야만 선수촌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선수촌 예정지(33만9057㎡)를 포함해 374만8840㎡ 규모의 첨단3지구 개발사업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더 이상 신도심 정책은 안된다"며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고 보류해 선수촌 건립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게 됐다.

특히 광주연구개발 특구 첨단 3 지구는 북구 월출동 일원과 장성군 진원·남면 일대가 포함되면서 행정구역상 문제도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0% 이상이 행정구역상 전남이라는 점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장인 반재신(북구 1) 의원은 "구도심 재생에 나설 곳이 많은데 새롭게 신도심을 만드는 것은 반대다"면서 "광주·전남 공동산단을 광주도시공사가 추켜드는 것은 무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여건을 만들어 기업과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말하지만, 10분거리에 배후도시로 첨단1지구 등이 있다"면서 "도시공사가 땅장사를 해 적자를 매꾸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전남 선수촌 예정지를 발표하면서 "광주시의회 승인을 전제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은 것도 이같은 시의회 반대 기류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광주시가 1순위로 선정한 첨단3지구 선수촌 건립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대회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면서 "시의회 승인이 안된다면 다른 지역을 물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월호 선체 인양 촉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 현안 7건 의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대구시의회 의장)는 2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2015년도 제2차 임시회를 열어 세월호 선체인양 촉구 결의문 등 전국 현안 7건의 의결했다.

전남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세월호 선체인양 촉구 결의문'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조도 해역은 진도뿐만 아니라 인근 목포, 신안, 완도 등 서남권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청정해역을 회복하고 남아 있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는 선체 인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한·중 FTA 대책 촉구 결의문'(전남도의회), '지방의회 건의안·결의안에 대한 회신 의무화 건의문'(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의정활동보고서 우편요금 감액 건의문'(전북도의회),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건의문'(광남도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침해방지 제도개선 건의문'(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건의문'(대전시의회) 등을 의결했다.

이들은 의결된 결의문과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고 시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다음 임시회는 오는 4월 대구시의회에서 열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합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GOChina 중국 전문 인력양성

www.gochina.co.kr

자갈천하주세요!!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 233-9582 (중) 구오말리

1636 걸고 믿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국가통신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마스크리아 '꿈' 전시관 '왕' 전국모임로 활동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주)골드미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